2006 5월호 제374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생각해봅시다	4	키티 맘과 헬리콥터 맘/이소희
전국지도자대회	6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8	행복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리더십/허신행
절약가이드	11	청소년을 위한 휴대폰 요금 절약 방법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정보	14	대여용 유모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소비자경보	16	무료영화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
알아봅시다	18	사이버폭력, 남의 일 아니다
소비자뉴스	20	소득세 내역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식품뉴스	22	인삼 자체 품질검사 허술, 농림부 제도개선 나서
여성뉴스	24	여성 성피해자 신고는 1366으로
에세이	26	할아버지 보디가드/한순
금융길라잡이	28	어떤 금융 기관을 선택할까?
생활정보	30	보험, 손해 보지 않고 가입하는 요령
음식이야기	32	몸에 좋은 유산균 드세요!
가정요리	34	부모님을 위한 효도 요리
건강	36	자연이 준 선물, 삼림욕
생활의 지혜	38	남은 음식 재활용 노하우
문학산책	39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	40	고향의 정취 간직한 옛 돌담길 걸어보세요!
중앙회소식	41	2006년 우수 브랜드 쌀 한마당
지부소식	42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시판	50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2006년도 전국지도자대회(중앙회, 06. 4. 25~26), 제29회 주부교실 회원 친선 운동회(대전광역시지부, 06. 4. 29)〉

월간 주부교실 5월호

발 행 일 : 2006. 5.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 정 욱

비매품

키티 맘과 헬리콥터 맘

이 소 희 /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의한 횟수가 20년을 넘습니다. 그 동안 한결같이 첫 강의에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1999년까지는 대부분 "좋은 엄마"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멋진 엄마"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쿨(cool)한 엄마라고 영어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엄마들은 30대 전후의 엄마들에게 붙여지는 키디맘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키티맘은 즉, 74년에 만들어진 인형 캐릭터인 '키티'와 함께 자란 세대를 일컫는 말로 25~34세의 기혼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높은 학력으로 자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보이며, 정치 및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좋은 엄마'와 '멋진 엄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엄마는 공통적으로 '모성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행동가치는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나, 멋진 것이나 매일반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기를 그으며 나타나는 좋은 엄마와 멋진 엄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멋진 엄마에게는 윈윈(Win-Win)의 개념, 곧 아이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진정 좋다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 좋은 것은 멋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이도 좋고, 나도 좋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not talk, only action"이라는 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엄마는 그야말로 '아이한테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다'는 생각이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엄마라면, 멋진 엄마는 즉 아이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엄마로서 지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외롭고, 쓸쓸해지는 엄마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엄마가 멋진 엄마인 것입니다. 따라서 멋진 엄마들의 생각은 얼핏 이기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식도 좋고, 엄마도 좋다는 관점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헬리콥토 부모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이 헬리콥터 엄마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신 극성엄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극성엄마는 아이가 싫어도 엄마의 주관적 생각으로 아이를 끌고 다녔지만, 신 극성엄마는 아이도 좋아하고 자신도 좋아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학생이 된 자녀가 요구하면 수강신청은 물론 과제물 챙기기, 진로결정, 직장결정, 기업의 채용담당자를 찾아가 자신의 자녀를 홍보하고 심지어 연봉 협상에까지 직접 나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 과보호현상인 셈이며, 이러한 헬리콥터 엄마는 특히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고학력자 출신의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함으로서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타나기 쉬운 현상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부모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도 하므로 부모-자녀관계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자녀 독립심 키우는 12가지 방법 ●

1. 느긋해져라
2. 갈등 해결법을 배우게 하라
3. 실망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라
4. 아이의 관심사와 열정을 존중하라
5. 스스로 자신을 대변하도록 하라
6.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7. 매년 자유와 책임을 조금씩 늘려라
8.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라
9. 시간 관리법을 가르쳐라
10. 도움을 청해올 수 있는 코치가 되라
11. 든든한 버팀목이 되라
12. 자녀가 대학생이 됐다면, 아이는 이미 당신이 한 말과 보여준 행동을 충분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료:뉴스위크 한국어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치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경기에서의 코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알다시피 코치는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고, 언제나 그라운드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코치는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말과 시범으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승리를 획득하도록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멋진 코치 엄마도 늘 자녀 옆에 붙어있거나 따라 다니면서 지시하지 않아도 자녀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엄마를 자녀들은 좋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멋진 엄마는 멋진 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지난 4월 25일~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홀에서 1박2일 과정으로
전국에 있는 주부교실 지도자 1천여명이 함께 모여 전국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행복한 미래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란 주제를 시작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국주부교실 지도자결의대회", "가스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전국주부교실지도자결의대회", "물사랑 · 물절약실천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
지도자대회"를 통해 여성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및 자질 함양에
힘썼다. 더불어 회원 간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1

2

3

4

❶ 대회사를 통해 '행복한 미래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본회 이윤자 회장

❷ 치사를 통해 주부교실 지도자들이 가스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여성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격려하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❸ 축사를 통해 주부교실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물 교육사업 추진을 높게 평가해 준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❹ 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에 주부교실 지도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확신하는 박홍수 농림부장관

5

6

7

8

❺ 가스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결의문 선창(한혜자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으로 안전 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❻ 물 사랑 · 물 절약 실천 선언문 낭독(곽한옥 서울시지부 강남구지회 회장)으로 물 교육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❼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선창(김영희 제주도지부 회장)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주부교실 지도자들

❽ 주부교실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은 16개 시 · 도 지부기 입장

행복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리더십

허 신 행 / 한몸정각사회연구소 원장

Ⅰ. 문명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역할의 변천 과정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가 이성적 대 감성적, 능동적 대 수동적, 개방적 대 폐쇄적, 대립적 대 융화적, 지배적 대 추수적, 독립적 대 의존적, 우월감적 대 열등감적, 주아적 대 몰아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남녀간 이런 성격의 차이가 학자에 따라 선천성 혹은 후천성, 성(性)적 또는 생리적 등 여러 가지 근원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한다고 보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던 나는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미래』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힘의 축이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에게로 넘어간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그 후 여성의 세계는 무척이나 빠르게 변해왔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과 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여성들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다양해지면서 많아진다는 데 있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 역시 놀랍게 향상되고 있다. 여성 정상의 탄생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제 낯설지 않게 됐고, 후진 지역인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여성 대통령들의 부상이 더 이상 큰 뉴스거리의 메뉴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시대를 낳게 만든 직·간접적인 요인들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첫째, 한몸-정각 사회의 깨달음이나 한몸화 모두가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둘째, 여성들이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셋째, 여성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 등 재택근무를 가능케 한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섯째,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운 중년 전문 여성들은 임금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여성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시대를 향한 역사적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일반적인 성격 규명부터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들을 비판하거나 남성들과의 비교를 위한 소모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 그에 걸맞은 성격 유형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다. 이런 교정 작업을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성격 유형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유형 자체가반드시 과거의 남성 유형일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유형은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남성과 여성의 성격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런 가설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Ⅱ. 여성 리더십의 자질 향상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여성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질과 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여성의 일반적인 성격부터 점검하고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위해 과감한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십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라고 하여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은 보다 더 '이성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성격을 다듬는 적응 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꿈과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춰야 한다. 꿈은 영혼과도 같은 것인데 영혼이 빠진 사람을 따를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기와 도전 정신을 지니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남다른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갖춰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셋째, 훌륭한 리더는 실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리더는 다른 무엇보다도 '원칙'을 중시 여기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원칙과 비전은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넷째, 리더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선택을 잘 하려면 상황에 대한 뛰어난 분석 능력과 대응 전략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 옳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되면 주어진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에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성공의 조건이기도 하다

다섯째, 리더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성을 다 하는 끈기와 지구력을 가져야 한다. 끈기와 지구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열정과 정성도 가속을 받기 마련이다. 가속을 받을 때 힘이 배가되고 어려운 일도 성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리더는 목적하는 바 일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며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리더는 솔선 수범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솔선 수범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 끈이 튼튼하면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고, 그 끈이 약하면 관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리더는 동시에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작은 공로보다 전체적인 일의 성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일곱째, 리더는 나누고 베풀면서 일하는 동안 다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섬세함을 갖춰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노력하더라도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가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항상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섬세한 배려까지도 잊지 않아야 이웃과 사회가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맺는 말

산업 - 지식 사회가 지나고 새로운 한몸 - 정각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원시⇒농경⇒산업 사회를 거쳐오는 동안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내향적이었고 수동적이었으며 섬세한 성격 등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여성들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 유형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꿈과 용기, 그리고 도전정신은 물론 실력 배양, 선택과 집중, 열정과 정성, 솔선 수범, 나누고 베풀면서 다친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자질 등을 갖춰야 드디어 훌륭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리더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쪼록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여성 지도자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새 시대의 리더로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

청소년을 위한 휴대폰 요금 절약 방법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즐기다가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과다 요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피해로 정부와 이동통신업체가 지난 4월부터 '데이터요금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스스로 휴대폰 요금 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본인 명의로 전용요금제 가입

이동통신 3사 모두 청소년 전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다한 휴대폰 요금을 방지하려면 청소년 명의로 전용요금제에 가입하고, 보호자가 요금 고지서를 살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부모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자녀에게 줄 경우 성인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소액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 등 콘텐츠 구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 매니아라면 정액제가 유리

무선인터넷으로 게임이나 음악을 내려 받거나 동영상, TV시청 등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라면 각 업체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유선과 무선 서비스가 모두 이뤄지는 사이트라면 유선인터넷을 이용해 콘텐츠를 내려 받는 것도 휴대폰 데이터 통화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각 이동통신 사업자 콜센터에 연결해 자신의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알뜰하게 휴대폰 요금을 관리하는 비결이다.

문자메시지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건당 30원이 부과되지만 인터넷으로 문자메시지 무료 사이트나 각 이동통신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현재 통용되는 문자메세지의 70%가 무료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한다.

스팸 차단으로 불필요한 욕구 자제

광고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 무심결에 회신 버튼을 누르면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국제전화로 연결되거나 10초당 수백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리 스팸 광고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불필요한 정보를 받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의 소리

고속도로휴게소 경정비센터의 바가지 요금

내용 김정태(충북 음성군 생극면)씨는 2006년 5월 11일 새벽 3시경 경주 휴게소 내 경정비센터에서 자동차 전조등 1개 교환을 했는데 50,000원을 요구하여,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였으나 원래 3만원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2만원 더 받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카센터에서 전구 교환하면 5천원~8천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고속도로 휴게소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닌지?

말싸움하다가 40,000원 달라고 하기에 바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지불했으나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처리 아무리 가격자율화라 해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할 시청 교통지도과 담당 부서에 문제 제기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2만원 감액 환급처리(계좌입금)토록 하였다.

온갖 감언이설로 통신사 바꿔놓고, 약속 불이행

내용 김정호(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씨는 원래 하나포스를 사용했었는데 텔레마케터(홍OO)로부터 온갖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K통신사로 바꾸라고 며칠을 계속 전화하면서 하나포스의 위약금 물어준다고 계속 설득을 하였다.

마침 약정기간이 다되어 위약금은 괜찮다고 했더니 3년 약정을 하면 3개월 인터넷무료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핸드블렌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물론 설치비나 다른 추가비가 절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옮기자 하고 3월 17일에 가입해서 개통했는데 4월 12일 현재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해주고, 아니면 보냈으니 며칠 안에 도착할 거라 하고, 담당과 팀장에게 수차례 통화해도 매번 같은 대답이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위탁 영업점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미루기만 한다. 속임수 판매 방법 문제가 있다.

처리 감언이설로 타경쟁사를 배제시킨 판매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약속한 상품권과 핸드블렌더를 제공받고, 기타 착오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할인금액으로 구입한 휴대폰, 정상요금으로 인출 되었다

내용 박숙자(경북 구미시 임은동)씨는 2005년 11월 2일 광진 농협 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단말기대금이 599,000원인데 2년 사용 조건으로 24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요금은 자동 이체키로 하였다.

최근에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보니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요금이 인출되어 항의했으나 할인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입당시 LG텔레콤 019번호 사용 중이었고 신규 가입 시 할인혜택이 된다 해서 기존 사용하던 019 휴대폰 해지하고 신규 가입했다함.

처리 할부판매계약서 확인결과 금액이 599,000원으로 할부기간 24개월로 기재되었으며 특약으로 "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가 4만원 이상이면 월 1만원 24개월 할인되며 최초 적용시점은 06년 1월 적용해서 24개월로 한다. 단 첫 달은 할부금 수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사업자는 할부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소비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고, 소비자는 기존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하고 가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신규가입 했겠냐고 주장, 결국 쌍방이 50%씩 양보하여 12만원 할인해 주기로 합의처리 하였다.

SK 텔레콤 휴대폰요금 CMS코드로 입금했는데, 당일 자동으로 2중 인출

내용 이석준(경기도 고양시)씨는 4월 14일에 휴대폰요금을 고객센터상담원 안내에 의해 CMS코드로 입금을 하였고 요금이 정상처리 되었다는 문자까지 확인을 했다.

그런데 당일 휴대폰요금이 자동으로 또 인출되었다. 그 당시 여 상담원이 CMS로 입금을 하면 추가로 인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18일 중복된 요금을 4월분으로 승계한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어떻게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고객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맘대로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 고발조치 하겠다고 해도 하라는 식이다.

처리 고객 상담실에 진상 조회 후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즉시 123,700원 환급 처리하였다.

웅진코웨이 연수기(렌탈) 정기점검 누락, 대금만 인출

내용 권정원(충남 서천군 서천읍)씨는 2005년 8월 웅진코웨이 연수기 렌탈을 월 3만원인데 선불하면 연 30만원이라고 하여 선불하고 매월 점검을 받기로 하고 계약,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도 점검해 주지 않고 넘어 가더니, 이달(4월)에도 안 해주어 전화로 항의하니 전산상의 오류로 착오가 있었다고 미안하다는 말뿐, 환불은 규정상 안 된다 한다.

처리 당사에 부당 징수에 대한 문제 알리고 실수를 인정 지난 1개월분(11월)은 환불해주고 4월분은 오후 늦게라도 점검 이행키로 처리하였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상품(자석매트, 건강 팔찌, 건강식품) 광고 효과 없어 반품요구

내용 김순자(대전시 유성구 용계동)씨는 2006년 2월 판매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상품권과 상품을 받았다. 그저 받기가 미안해서 싼 제품 하나를 더 구입했더니 더 비싼 상품권을 하나 더 주었다.

다음날 제주도 및 중국 여행도 시켜주고 더 좋은 상품을 준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자석매트, 건강식품, 건강 팔찌등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한 달가량 사용해보니 선전 내용과 달리 효과가 전혀 없어 반품 요청하니 안 된다고 한다.

처리 업체(보이 코트(주))를 관할구청에 조회하여본 결과 방문판매 미신고 업체였고, 이를 업체에 알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처리토록 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대여용 유모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사용자는 주요 부품의 작동법 미리 숙지해야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 서울 등 5개 도시의 백화점과 종합놀이시설 및 박물관 등 33개 시설의 대여용 유모차 724대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4대 중 1대가 파손 혹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원인과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대여한 유모차 안전한가?

대여중인 유모차 중 25.3%인 183대가 주요부품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의 파손 또는 훼손된 부위는 정지장치인 경우가 86대로 가장 많았고, 벨트는 32대, 이중 잠금장치는 31대로 뒤를 이었다.

또한 대여용 유모차 관련 안전수칙을 게시나 고지하지 않고 있었고, 생후 24개월인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유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여용 유모차 사용시 체크 포인트

●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지난 5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중 이용 시설 내 유모차 안전사고 중 21건(50%)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되는 추락·전복사고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벨트착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 정지장치(Stappe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정지장치는 유모차가 정차했을 때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다. 훼손이나 파손 시 갑작스런 동작으로 멈추거나 경사진 곳, 충돌 등에 의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전복돼 유아에게 추락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

● 이중 잠금장치의 사용법 확인

유모차의 잠금장치는 유모차의 종류, 형태별로 다양한 위치에 있고 손·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대여 후 잠금장치의 위치와 작동법을 숙지해야 우발적인 접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확실히 고정되지 않는 등받이 사용은 금물

등 받침 기구는 유아가 앉았을 때 등을 받쳐주고, 잠을 잘 때는 각도를 조절해 침대와 같이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등받이가 설정한 각도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유아에게 갑작스런 충격을 주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다.

● 유모차 사용시 안전 수칙

- 주행 중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잠금) 위치에 둔다.
- 이용 중 안전벨트를 풀지 않는다.
- 유아를 태운 상태로 들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 정지할 경우 반드시 바퀴를 고정시켜 둔다.
- 좌석에 필요 이상의 매트리스를 추가로 두지 않는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혼자 유모차 가운데에 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 6개월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의 다리가랑이 벨트로 고정한다.
- 정원 이상의 유아를 동시에 태우거나 해먹(앉는자리) 이외의 곳에 태우지 않는다.
- A형(디럭스형) 유모차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생후 2~24개월까지의 유아, 연속 사용은 2시간 이내가 바람직하다.
- B형 유모차는 보통 휴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아이를 등받이에 기대어 앉혀 사용한다. 생후 7~24개월까지의 유아, 연속 사용은 1시간 이내가 바람직하다.

유모차 구입 요령 알고 계시죠?

● 해먹(앉는자리)

해먹은 아기를 태웠을 때 다리가 편안하고 크기가 적당해 어깨 및 가슴에 압박이 없고 머리 부분이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 등받침 기구

각도를 조절해 침대와 같은 편안함을 주도록 만들어진 등받침 기구는 적당한 눕힘 각도와 세움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확실하게 고정돼야 한다.

● 벨트

시트벨트와 가랑이벨트는 유모차를 밀고 갈 때 턱이나 파인 홈에 바퀴가 부딪혀 충격을 받은 경우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벨트를 잡아 당겼을 때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 틈

아기가 유모차를 타거나 주변에 있을 때 유모차의 틈새에 손이나 발가락이 끼여 다치지 않도록 틈이 없어야 한다.

무료영화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

최근 대학가나 지하철 입구 등 노상에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및 그 예방법을 알아본다.

■ 피해 현황 및 사례

무료영화 회원 가입 피해는 작년 한 해 동안 45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5월 4일까지만 88건이 접수되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으로 주로 학교 앞이나 교정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원에 가입하게 되는데, 일부는 영업사원 두, 세 명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입하거나 심지어 돈이 없다고 하면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가입을 유인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제휴영화관 거의 없고 무료라더니 500원 할인

2006년 3월경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이 '왕의 남자' 천만명 이상 관객동원 기념으로 한국 영화·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1년간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영화·연극·뮤지컬이 매월 5편씩 무료라고 해 2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함. 이후 확인해 보니 회원카드가 사용가능한 영화관은 몇몇 개에 불과하며 무료가 아니라 500원 할인 혜택만 있었다.

사례 2 은행까지 같이 가자며 회원 가입 권유

2006년 2월 말경 강남역 근처에서 영업사원이 전산관리비 2만원을 내면 1년 내내 영화·연극을 공짜로 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함. 돈이 없다고 하자 출금 가능한 카드가 있으면 은행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유인해 어쩔 수 없이 2만원을 내고 다음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서울에서 관람 가능한 영화관이 거의 없고 당초 얘기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사례 3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취소 요구하자 거절

2006년 4월 중순경 학교 앞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하고 관리비 2만원을 지불함. 당시 매월 영화 3편 이상, 연극 2편 이상 무료 관람과 특별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수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지방에 제휴된 영화관은 전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사례 4 무료영화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2006년 4월초 학교 앞에서 영업사원이 관리비 2만원만 내면 1년간 무료로 영화·연극을 볼 수 있다고 해 회원에 가입한 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언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사회에 신청해 당첨돼야 볼 수 있고 제휴영화관도 많지 않았다. 또 시사회 예약을 위해 예약버튼을 클릭했으나 예약이 다 찼다며 당첨이 되지 않아 거의 혜택이 없었다.

■ 피해를 예방하려면

▶ 얕은 상술에 현혹되거나 충동적인 계약은 금물!

노상에서 무료, 이벤트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대금결제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노상에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현장에 계속 있다보면 영업사원의 설명과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원 가입시 계약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하세요!

회원 가입 전 실제 무료 관람이 가능한지, 제휴 영화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무료관람에 제약조건은 없는지 등 서비스내용과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 가입시에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요구하여 보관해 둔다.

▶ 청약 철회시 기간 내 내용증명 발송 및 사본을 보관하세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노상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시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장 작성한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내용증명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상의 회원가입 계약(계속적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후 환불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폭력, 남의 일 아니다

-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대응책 -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중앙선관위 사이버감시팀이 사이버 불법 선거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어 편리함을 주는가하면 한편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사이버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다.

사이버폭력, 왜 위험할까?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 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또한 댓글과 퍼 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대응책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침착하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응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수사기관 등에서 알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을 화면 캡쳐하여 저장해 두며 발생경위를 기록해 둔다. 이는 상담과 신고, 소송에 꼭 필요한 자료이며, 임의로 편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사이버폭력 예방 - 네티켓을 실천하자

사이버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네티켓)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는다.
-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한다.
-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되지 않기

- 중성 ID를 사용한다.
-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말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한다.
-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 불법·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한다.

〈자료출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득세 내역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물론 지급조서 제출 내역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2005년 및 2006년 양도분, 지급조서는 2005년 귀속분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원천세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를 하려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납부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부터 개인별 건강상태와 진료내역, 거주지 등의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대사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 정보 △금연 프로그램 △비만개선 프로그램 △인근 병원·약국 정보 △의료기관 이용정보 등 5가지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사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자료와 문진 자료 등을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태에 대해 맞춤형 처방정보를 제공한다. 대사성 질환이란 비만이나 운동부족, 과잉영양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는 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연 프로그램은 참여를 원하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중독 검사 등을 한 후 검사결과에 맞는 맞춤 금연처방정보를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비만 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비만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식이, 운동 등 알맞은 처방 정보를 제공해 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한 후 '건강마당-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무조건 보장' 등 허위·과장 보험광고 땐 벌금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광고할 때는 각 협회에 구성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나머지 보험 광고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보험사가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상품 판매 광고 규정을 마련해 6월 1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TV(TV 홈쇼핑 포함)와 신문·잡지·라디오 광고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광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금액·담보별 보장 개시일(예컨대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 보험금 지급 횟수와 지급 한도, 보험금 미지급 조건, 금리 연동 여부, 보험료와 납입기간, 청약 철회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 보장' '위험이 없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되며, 입원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면서도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최고 보장 금액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부당 약관을 사용해 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별로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송부하고 앞으로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해물질 어린이용품 '긴급리콜제' 도입

장난감이나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독성·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적발되거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 즉각 제품을 수거·파기 또는 교환·환불해주는 긴급 회수(리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원년을 맞아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어린이용품 위해 관리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교육홍보 강화 ▲어린이 체내수은 중독 방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감시 등 어린이 환경건강 6개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시·산업단지 어린이 놀이터 10여 곳을 선정, 놀이터 모래와 목재·철골·플라스틱 놀이기구에 대한 12종 유해물질 조사를 벌여 유해 페인트, 목재방부제,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놀이터 환경안전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스쿨존과 학원, 보육시설 등 전반에 걸쳐 유해물질 노출 조사와 평가를 실시, 종합 관리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산모와 영·유아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키로 위해 영유아 1천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기형), 발달장애(자폐 등) 등과의 연관성 조사를 올해부터 착수키로 했다.

FOOD NEWS

인삼 자체 품질검사 허술, 농림부 제도개선 나서

농림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등 인삼제품 중 불량품의 비율이 많아져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정검사에서 지난 99년부터 지정검사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자체 검사로 바뀐 후 품질 부적합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삼 품질검사의 부적합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체 검사업체의 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검사 기록서를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농림부가 시중 유통되는 자체검사 제품에 대해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별 수분 함량 등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비율이 2003년 1.7%에서 2004년 56%, 2005년에는 65%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와 관련, 지난해 5개 업체에 대해 자체 검사권을 취소했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제품의 경우 품질별로 가격차가 큰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유통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FDA, "녹차 심장병 도움 과학적 증거 없다"

미식품의약국(FDA)는 녹차의 상표에 심장병 위험 감소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녹차가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FDA는 이 신청을 기각하는 서신에서 "FDA는 녹차나 녹차 추출물이 건강에 좋고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 규격 신설해

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해 말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 이후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 규격을 새로 마련했다.

김치류에서 회충이나 요충, 구충, 편충, 동양모양선충 또는 이들 기생충의 알 등의 나와서는 안 되도록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란) 규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김치류에서 납은 0.3ppm(㎎/㎏) 이하, 카드뮴은 0.2ppm(㎎/㎏) 이하로만 검출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치를 넘으면 일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감자튀김류 발암물질 줄이기 대책 마련

최근 감자칩이나 프렌치후라이 등 감자튀김류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는 소식과 관련, 보건당국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그동안의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감화를 위한 본격 작업을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관련조사와 저감화 연구 등을 실시해왔고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등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인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 식생활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음식 조리시 120℃이하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도록 하고 감자는 8℃이상의 음지에서 보관하고 냉장보관은 피하며 빵이나 시리얼 등 곡류제품, 감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고 식품 조리시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과자, 빵 등에 당(糖) 함량 표시 의무화

앞으로 과자류와 빵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설탕과 과당 등 당(糖)의 함유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을 개정, 9월께 입안예고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 영양평가팀 박혜경 팀장은 "최근 어린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당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나아가 중장기 연구작업을 통해 가공식품의 당 잔류허용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소아과학회의 조사를 보면 2001년 6~17세 남자와 여자의 비만율은 각각 17.9%, 10.9%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어린이들이 무심코 먹는 간식에는 알게 모르게 당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식약청이 2004~2005년 국내 유통 가공식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당 과잉섭취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과잉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면서 심혈관질환이나 암, 당뇨병, 비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모든 가공식품에 당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비타민 남용, 건강 해로워

AP통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최로 최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 성인의 절반이 종합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지만, 비타민이 건강에 효과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 비타민을 무턱대고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립보건원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성인의 50% 정도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건강이 매우 양호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학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각종 비타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데, 특정 영양소가 질병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영양소를 과잉 섭취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니아신을 많이 먹으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고,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건장애아를 출산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OMAN NEWS

여성 성피해자 신고는 1366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에게 열악한 고용관계 등을 악용해 성상납을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 여성의 신고·상담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를 신고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성피해 여성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상담·의료·법률지원은 물론 오는 6월부터는 경찰청에도 통합신고센터를 마련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여성들의 피해를 막고 성문화 개선을 위해 여성의 성관련 피해사례가 많은 직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피해구제방법을 알려 나갈 방침이다.

박현숙 여가부 권익기획팀장은 "성피해 신고사례를 보면 연예인 지망생이나 행사 도우미들의 경우가 특히 많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희망이나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데도 피해를 입고 있어 이들에게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실시

가정 단위의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현재 23곳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말까지 50곳으로 늘어나고 2010년까지는 16개 시·도와 256개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돼 총 27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종합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천안과 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곳에서 총 60명의 '아이 돌보미'를 필요한 가정에 보내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전국 센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9세 이하 아동과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야근이나 질병, 출장 등으로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게 되거나 보육시설에 데려다 줄 수 없을 때 센터에서 교육 받은 '아이 돌보미'를 필요한 시간에 보내줘 간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며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밖에 희망가정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액이 책정될 계획이다.

여성 경제활동비율, OECD 최하위권

재정경제부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 기준으로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9%로 OECD국가 평균 60.1%에 비해 6.2%포인트나 낮았다. 한국의 이 비율은 90년 49.9%, 2000년 51.8%, 2001년 52.7%, 2002년 53.4%, 2003년 52.8% 등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여성 경활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50.6%), 멕시코(42.8 %), 터키(27.0%) 등 3개국 뿐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81.8%에 이르렀다. 또 덴마크(76.1%), 스웨덴(76.6%), 노르웨이(75.7%), 스위스(73.9%), 캐나다(73.5%), 핀란드(72.0%)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호승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선진국들의 경우 주부들이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직제도 개선,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주부들이 육아와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기농' 표시 화장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기농 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다며 피부가 연약한 사람이나 아토피가 우려되는 유아들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농 성분이 다른 화학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품 이름을 '유기농' 또는 '오가닉'이라며 표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돕기로

최근 젊은층 부부의 이혼 증가로 '싱글 맘(mom)·싱글 대디(daddy)'가 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법원이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해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떨어져 살게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와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면접교섭' 결정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 싱글 맘이나 싱글 대디가 자녀와 직접 만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부부 간 갈등이 워낙 심한 나머지 양육권이 없는 전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이혼 당사자들을 설득,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적정 빈도로 만나는 게 좋다고 권유해 면접교섭 결정을 내린다.

한편 이혼 부부 중 한 쪽이 친부·친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등 면접교섭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행명령 건수는 2004년 42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16%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1월 8건, 2월 7건, 3월 7건 등 석 달 간 22건을 기록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할아버지 보디가드

그 옷은 아파트 경비원의 옷과는 좀 다르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옷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나비넥타이가 흰 머리카락과 잘 어울린다.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신 이 멋진 노인은 누구인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여린 선을 가진 여자 아이가 나타나자 노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환한 미소로 아이를 맞이하고 어린 아이와 할아버지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그리고 몇 층을 갈 것인가를 묻고 손수 버튼을 눌러 주신다. 아이는 자기 집이 있는 층에서 내리고 답례로 꽃 같은 미소를 보낸다.

얼마 전 유아 성폭행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그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세상에 대한 불신에 눈물을 글썽이다가 생각해낸 광경이다. 어느 대기업에 근무했던 분이 60살이 되어 퇴직을 하고 무려 10여 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럭저럭 지내고 나서 노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었음을 고백한 일이 있다. 우리 동네에도 노인정이 있다. 그곳에는 건강하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동년배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밥을 지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용돈이라도 넉넉한 날이면 한잔 술을 돌리기도 하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은 어떨까? 그저 하루가 지나간 것 이상의 자존감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유아 성폭행과 노인정을 떠올린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시고, 좀 더 건강하신 노인들께는 제복 몇 벌만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할아버지가 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제복을 입고,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추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동네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멋진 보디가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앞에 간의 의자를 하나 놓아두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잠깐씩 쉬고, 몇 명의 아이들을 제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준 후 다음 분과 교대를 하면 된다. 하루 종일 해바라기를 하거나 바둑이나 화투로 하루를 보낸 것과는 좀 다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실버 분야의 출판을 시작한지 벌써 6년을 지나고 있다. 처음에는 자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이도 없어 막막하고 답답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유수 일간지 〈〈알게 마이너 자이퉁〉〉의 발행인인 프랑크 쉬르마허는 최근 출간한 〈〈미니멈〉〉이란 책에서 공동체의 몰락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는 창조 이래 계속 팽창해 왔다.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에 출산율이 급격히 줄면서, 인류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1960년생을 전후로 하여 베이비붐이 정점을 이루었고 2018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여 노인 인구가 된다. 그러면 한국의 인구분포도는 역삼각형을 그리게 된다.

그렇다면 1960년에 태어나, 전쟁 후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시기에 남성과 오로지 실력으로 겨루면서 일과 아이를 돌보며 구두 뒤축이 부러질 정도로 뛰어다니던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그들이 잠시 누렸던 복지의 혜택도 이제 얼마가지 않아 바닥이 날 것이고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 작은 소공동체부터 부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모습은 과거 동양의 가정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버리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그들은 다시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그들이 개인주의의 극을 달려 도달한 시행착오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잃어가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이타적 존재이다. 혼자 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반면 더불어 살아가는 온기가 없으면 서서히 죽어간다.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살 세상은 거대한 노인들이 있고 이제 막 물고가 터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통일의 문제가 중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시대에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산 교과서가 될 것이다. 준비 없이 긴 노년을 맞이한 노인 세대에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우리 또한 노인이 되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온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가정을 잘 지키고 지역공동체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미니멈〉〉이란 책에서는 지평선 너머에 있는 꿈의 캘리포니아를 찾아 혹한의 돈너계곡을 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의외로 건장하지만 홀로 떠나온 청년들이 먼저 죽는다. 나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가정이 있고 여성이 있는 가족 공동체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최소한의 온기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오늘날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이중 역할을 현명하게 분배하며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인류가 존속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한순/수필가〉

도서출판 나무생각 발행인겸 주간. 200여 권의 책을 기획, 편집했으며 쉽게 풀어 쓴 고전으로 〈우리 좋은 고전〉상 수혜. 국민일보 오피니언에 〈에세이〉 연재. 현재 수필가로 활동 중.

어떤 금융 기관을 선택할까?

금융 기관은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므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융 기관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금융 기관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금융 자율화 이후 금융 기관 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져 일반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금융 기관별로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저축 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 등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이 높은 저축을 원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 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수익성 높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 신탁 회사나 증권 회사를 주로 이용한다. 손쉬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새마을 금고나 신용 협동조합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금융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 안전성

우리는 금융 기관이 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금 보험 공사에서는 금융 기관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 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되는 금융 상품에는 제한이 있고, 금융 기관이 파산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은행권의 평균 금리로 보상받게 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우량한 금융 기관을 찾아 거래하는 것이 좋다.

2. 수익성

안전성이 비슷한 금융 기관이라면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요즘은 금리가 낮아져서 예금을 해도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도 있으므로, 금융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3. 편리성

위치는 편리한 곳에 있는지, 전화 및 인터넷 뱅킹이 편리한지, 온라인 송금 및 각종 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되는지, 야간 및 공휴일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지점 및 현금 지급기 등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지, 자동 대출 서비스는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4. 친절성

금융 기관의 모든 서류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 직원들은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지, 거래 도중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해결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금융기관 선택하기

다음 도표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 기관을 선택해보자.

(각 항목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준다)

특 성 \ 금융기관	A	B	C	D	E
내게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집에서 가까운가?					
업무 시간은?					
ATM이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이에 있는가?					
서비스 이용료는 얼마나 되는가?					
안전한가?					
대출은 가능한가?					
총점					
나의 선택은?					

또한 인터넷 금융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이때 수익률과 안전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 모네타(www.moneta.co.kr), 네오머니(www.neomoney.co.kr), 이모든탓컴(www.emoden.com)

금융감독원의 공지 정보 서비스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연합회, 증권업 협회, 투자 신탁협회, 생명보험 협회, 대한 손해 보험 협회 등 각 금융업 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경영 공시 내용을 통합 링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기관마다 금리와 수수료 등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 기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공시는 매우 유용하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 손해 보지 않고 가입하는 요령

- 약관 꼼꼼히 확인,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는 필수 -

보험회사들의 판매방법이 전화(TM), 인터넷, 은행(방카슈랑스) 그리고 TV홈쇼핑 등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건강·상해 관련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서 부쩍 많이 방영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판매상품을 무심코 보고 있으면, 특히 건강관련 보험이나 상해관련 보험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건강관련 보험은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대상 및 범위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비 실손 보상형 상품들 또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 회사가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가입해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 -

보장 질병 범위를 넓고, 보장 기간을 긴 것이 유리

1. 보장되는 질병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모든 질병이 보장된다는 광고나 모집인의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되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회사 상품마다 보장하는 내용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장 질병의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보장 기간(보험 기간)을 길게 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40대 이후 발견되어 치료되는 경향이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소 지루하더라고 보장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3.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질병인 암·뇌졸중(중풍)·급성심근경색증(심장마비)는 발병한 직후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발병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기존에 가입돼 있는 질병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가입한다

새로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되는 질병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장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 상해보험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 -

교통상해만 보장하는 상품보다 일반 상해까지 보장하는 것이 좋아

1. 최고 보장 금액이 아니 전체적인 보장 범위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에는 '최고 ○억원 지급', '교통사고시 ○억원 보장' 등의 문구를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발생 확률이 극히 드문 사고에 한해 아주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상해보험은 최고 보장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시 얼마나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면 교통상해만 보장하는 상품보다는 일반 상해까지 보장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원과 수술만 보장하는 것보다는 치료비와 임시생활비 보장 등 상해 사고 발생시 실제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상해보험 상품을 선택한다

기본적인 상해 보장 이외에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생활 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장 내용을 추가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직업에 따라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가입할 때도 직업 고지를 해야 하지만 가입 후에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한다. 질병과 관련된 보험 상품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같은 반면 직업·직무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

따라서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직업이 바뀌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 권유를 받은 보험회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들과 비교해 보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시대'에서 내용 일부 발췌〉

몸에 좋은 유산균 드세요!

-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하고 대장암 예방 효과 -

최근 유산균의 항암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한다. 변비개선 효과부터 항암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유산균이란?

인체의 장 속에는 100여종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다.

유산균은 장내세균(腸內細菌)의 한 종류로서 장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유해균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익균이다. 젖당이나 포도당 같은 당류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유산(젖산)을 만들어 장을 산성화함으로써 대장균이나 웰치균 같은 유해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암모니아와 발암물질의 생성을 줄여준다. 널리 알려진 유산균으로는 불가리스, 비피더스, 에시도필루스 균 등을 있다.

유산균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유산균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Hippocrates(460-377 B.C)가 '설사환자에게는 발효식품이 좋다' 라는 것이 남아 있다. 성경에도 유산균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유산균은 건강에 좋으며 아브라함이 장수한 것은 신 우유(발효유)를 늘 마셨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58년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처음 실체가 밝혀졌으나 본격적인 유산균 연구는 생물학자인 러시아의 일리아 메치니코프가 1908년 불가리아 지방에서 불가리아유를 연구하다가 '발효유에 의한 불로장생설' 을 주장하면서부터다.

대표적인 유산균 중 한국인의 장에 가장 많다는 비피더스균은 위산에 강해 장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높고 항균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 균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유를 처음 개발했다.

유산균의 효능

● 변비 개선 효과

변비 시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채, 과일,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의 부하량도 많아지고 장내세균 증가와 함께 유기산을 증가시켜 배변을 촉진하게 된다.

● 유해균 억제 효과

유산균은 병원균에 직접 작용, 감염하여 증식하려는 병원균을 체외로 배설시킨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 초산 등 유기산은 살균작용을 하며, 장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이러한 결과 유산균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을 억제한다.

●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콜레스테롤은 생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대사 이상 등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경우 동맥경화증, 뇌졸중,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유산균은 이러한 대사 반응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항암 효과 및 면역증강 작용

유산균과 장내세균이 종양세포를 축소시키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계속 발표되고 있다. Bifidobacterium sp.과 Latobacillus sp. 등의 유산균들은 세포벽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 당단백질인 펩티도글리칸 성분이 장관면역계를 활성화시켜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산균들의 항암 효과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동안 뿐 아니라 죽은 경우에도 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유당 불내증 개선 효과

우유 중에 함유한 유당이 유당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면 복통, 복부팽만,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당을 분해하는 유산균을 섭취한다면 유당을 분해하여 유당 불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 그 외에도 최근 보고되는 유산균의 효능

편두통개선 효과, 장내암모니아 생성 억제와 간손상 효소인 베타글루쿠로니다네 등의 생산억제에 의한 간장보호 효과, 암모니아의 생성억제를 통한 피부미용 효과, LgE 항체 생산억제의 의한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내용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부모님을 위한 효도 요리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위해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보자. 단백질과 섬유질 등
영양이 풍부한 재료로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하기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보자.

♥ 생선볼호두조림

재 료 > 대 구 살 300g, 밀가루 5큰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2큰술, 호두 1/3컵, 조림장(간장 1 1/2큰술, 설탕 · 물엿 2작은술씩, 물 1컵), 실파 1대

〈만드는 방법〉

① 대구살은 곱게 다지거나 믹서에 넣어 15초 정도 곱게 간다. 그런 후 밀가루와 참기름, 소금을 넣어 고루 섞는다.

② 양념한 대구살을 숟가락으로 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후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돌돌 굴려가며 익힌다.

③ 호두는 껍질을 벗겨 굵직하게 다지고 조림장 재료를 냄비에 담고 한소끔 끓이다가 호두를 넣어 조린다.

④ 조림장에 대구살볼을 넣은 후 중불에서 은근히 조려 양념 맛이 고루 배도록 한다. 그릇에 담고 송송 썬 실파를 올려 맛을 더한다.

♥ 양배추두부찜

재료> 양배추 1~5통, 두부 1/2모, 브로콜리 50g, 실고추 약간,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4작은술, 소금 약간, 양념장(간장 2큰술, 참기름 1/2큰술, 통깨 약간)

〈만드는 방법〉

① 양배추는 심을 도려내고 한 잎 씩 잘라 씻어 건진다.

② 두부는 물기를 닦아 곱게 으깨고,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데쳐 잘게 다진 후 두부와 함께 섞는다. 여기

에 실고추와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③ 양배추잎마다 양념한 두부를 얄팍하게 바르듯 담아 켜켜이 쌓아 한 김 오른 찜통에 넣어 무르도록 찐다.

④ 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준비한 양념장을 곁들인다.

♥ 숙채밀전병말이

재료> 당근채 볶음 50g, 시금치무침 150g, 식용유, 소금, 후추, 김 2장, 잣가루 약간, 초간장 적당량, 밀전병 반죽(밀가루 1/2컵,달걀 흰자1개, 물 1/3컵,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① 당근은 채썬 다음 식용유로 볶아 소금, 후추를 뿌린다.

② 분량대로 밀전병 반죽을 만들어 골고루 저은 다음 체에 내린다.

③ 식용유를 두른 사각팬에 밀전병 반죽을 얇게 부쳐낸다.

④ 김발 위에 김을 펴고 당근채볶음, 시금치무침을 가지런히 놓아 돌돌 말아준다.

⑤ ④의 김말이는 밀전병에 돌돌 말아 알맞은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는다.

⑥ ⑤의 밀전병말이에 잣가루를 뿌리고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 시금치는 소금을 약간 넣고 끓인 물에 줄기부분부터 넣어 데친다. 데친 시금치는 바로 찬물에 씻어 건진다.

♥ 새송이버섯산적

재료> 새송이버섯 4개, 소금 · 후추 · 참기름 · 밀가루 적당량씩, 다진 쇠고기 100g, 두부 30g, 잣가루 약간, 청홍고추 실채 약간씩, 고기양념(소금 · 약간, 곱게 다진 파 · 마늘 1/2큰술씩, 깨소금 · 후추 · 참기름 약간씩), 구이양념(간장 2큰술, 청주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파 · 마늘 1큰술씩, 깨소금 · 후추 · 참기름 약간씩)

※ 새송이버섯은 부서지지 않게 칼날로 저며 썬다. 저며 썬 새송이버섯은 튀김, 불고기, 전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

① 새송이버섯은 0.6cm 두께로 저며 썰어 약간의 소금과 후추,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

② 곱게 다진 쇠고기에 으깬 두부를 넣고 고기양념으로 간한 다음 충분히 치대어 섞는다.

③ 분량대로 구이양념을 만들어 골고루 젓는다.

④ 새송이버섯에 밀가루를 뿌려 묻힌 다음 여분의 가루는 털어낸다.

⑤ 버섯의 한쪽 면에 ②의 고기 반죽을 얇게 발라 잔칼집을 넣는다.

⑥ 팬에 ⑤의 버섯을 가지런히 놓고 구이양념을 발라 굽는다. 오븐 그릴에서 구워도 좋다.

자연이 준 선물, **삼림욕**

신록의 계절 5월이다. 도심의 오염된 공기와 밀폐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평소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가까운 숲이나 삼림욕장으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 발길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 삼림욕이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나무의 향내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 하면서 피로에 지친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새롭게 하는 자연건강법이다. 산림욕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채기술(採氣術)로 알려져 왔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애용되어 왔던 건강유지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3년경이며, 매년 그 관심도가 높아져 전국에 산림욕장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

산림욕은 나무들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가 좋고, 이때가 다른 계절보다 5~10배의 효과가 있으며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은 날이 좋다. 오후보다는 오전 10시~12시 사이가 좋으며, 산중턱의 숲 가장자리에서 100m이상 들어간 깊은 숲일수록 방출되는 방향물질이 많으므로 산 위나 아래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 삼림욕의 효과는?

숲의 공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노폐물배출로 신진대사 및 심폐기능 강화 신경조직의 이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산림욕의 신비한 효능은 '피톤치드(러시아말로서 phyton(식물)과 cide(다른 식물을 죽인다)의 합성어)' 라는 정유 물질에서 비롯된다.

'피톤치드' 는 수목들이 각종 병균과 해충 곰팡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뿜어내는 방향성 물질인데, 독소저해물질, 생장촉진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나무 특유의 향내와 신선한 공기는 바로 이 방어 물질인 '피톤치드' 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피톤치드' 가 가지는 보호물질이 사람들의 건강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식물이 피톤치드를 포함한 각종 정유물질을 뿜어내는 숲 주위 1m 내에는 세균이 거의 없으며, 신선한 떡갈나무나 자작나무의 잎을 잘라 그곳에 결핵균이나 대장균을 투입하면 몇 분 안에 죽고 만다.

공기 중 작은 먼지가 정유성분과 함께 호흡될 경우먼지의 81%가 정화되는 등 심폐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어린이에게는 숲이 자연의 신선한 공간을 제공하므로 성격 개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삼림욕의 효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식물이 발산하는 피톤치드와 테르펜 등 각종 정유물질이 유해한 병균을 죽이고 스트레스를 없앰으로써 심신을 순화하고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한다.

둘째, 울창한 숲 속 계곡 물가에 많이 있는 음이온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진정시키며, 혈액 순환을 돕는 등 문명병을 없애준다.

셋째, 나무가 울창한 숲 속을 천천히 산보하는 것은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피부 호흡을 통한 노폐물 배설과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여 반사 신경 등 운동 신경을 단련시켜서 인체건강에 유익하다.

♣ 올바른 산림욕 방법은?

산림욕은 나무가 우거진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나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가 많은 곳이 더욱 바람직하다. 산림욕을 할 때에는 통기성이 좋은 옷, 땀 흡수가 잘되는 편한 옷차림으로 산책이나 조깅, 심호흡, 사색을 하며 최소 3시간이상 숲속에 머물면서 산림욕을 즐겨야 한다. 이처럼 유익한 산림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이 있다.

정적인 방법은 산림욕 효과가 큰 숲 속을 산책하거나 평상과 해먹이 있는 곳에서 사색, 담소 등 가벼운 동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동적인 방법은 산림욕에 합당한 약간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코스별로 적당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심신에 합목적적 의식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산림욕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첫째로, 숲에서 보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땀을 흘리되,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동시에, 산림에 들어가서 가능한 한 산림의 현상을 탐색해야 하는데, 조류·나비·들꽃·곤충을 감상하고, 식물과 열매를 채집하여 식물도감을 봄으로써 즐거움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이러한 보행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숲을 걸으면서 다소 피로감을 느낄 때, 멈춰 서서 큰 나무를 향하여 심호흡을 하여 입으로 더러운 기를 토하고 코로 신선한 기를 들이마셔 심신을 가볍게 한다. 아울러 심호흡으로 테르펜과 음이온을 마음껏 흡입하여야 한다.

셋째로, 산림욕의 마지막 과정은 심리상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산림욕을 해야 한다. 인간은 오욕칠정(五慾七情)의 각종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숲 속에 들어가 고요히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심기(心氣)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생활 정취의 효과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시, 수필집이나 명상록을 지참하여 나무에 기대여 읽으면 좋다. 이것이 진정한 휴양(休養)이다. 〈내용출처 : 산림청 사이버홍보교육센터〉

남은 음식 재활용 노하우

■ 달걀 껍데기

- 칫솔로도 닦기 힘든 입구가 작은 병에 달걀껍질과 물을 조금 넣고 흔들면 찌든 때가 닦인다.
- 사용하지 않는 스타킹(망)에 달걀 껍질을 넣어 싱크대 거름통에 매달아 두면 냄새도 덜 하고 음식 찌꺼기도 끼지 않는다.

■ 우유

- 우유에 포함된 지방성분이 마룻바닥이나 목재가구에 광택을 내는 것을 도와준다.
- 우유팩을 헹군 물을 화초에 주면 영양제 역할을 한다.
- 흠이 난 접시를 냄비에 담아 물을 부은 후, 우유를 넣고 5분간 끓이면 우유의 단백질이 금간 틈을 메워주기 때문에 흠에 때가 끼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맥주

- 튀김요리에 물 대신 맥주를 넣게 되면 바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옷 세탁 시, 마지막 헹굼 물에 맥주를 넣고 담갔다가 탈수, 그늘에 말리면 색을 선명하게 한다.
- 남은 맥주로 냉장고를 청소하면 때가 잘 닦인다.

■ 소주

- 자른 햄 단면에 소주를 발라 보관하면 세균번식을 막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다.
- 굳은 치즈에 소주를 살짝 발라 잠깐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다시 부드러워진다. 먹다 남은 생선에 뿌리면 바싹 마르는 것도 막을 수 있다.

■ 원두커피 찌꺼기

- 말린 커피 찌꺼기를 바늘 쌈지 속에 넣어두면 커피의 지방성분으로 인해 바늘이 녹슬지 않는다.
- 세제와 함께 섞어 그릇을 닦으면 그릇에 묻은 기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 귤껍질

- 다시마와 말린 귤껍질을 넣고 끓인 후, 식히면서 15분쯤 우려낸다. 채에 걸러 이 물에 맥반석가루를 섞어 두피에 바르고 10분 뒤 헹구면 지성 모발에 효과적이다.
- 귤껍질을 햇볕에 말려 물에 펄펄 끓인 후, 세탁 시 세제와 함께 넣어 세탁하면 천연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생일 …… 장영희 글, 김점선 그림 / 비채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영미시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을 택하여, 그 주제와 연관된 영미시 49편을 간략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서 소개해준다. 신문에 연재되었던 원고라 어떤 시들은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면 그 내용이 상투적이거나 허술한 것이기 쉽지만, 이 책은 장영희 교수의 다정다감하면서도 진지한 집필 태도가 상투성과 허술함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일상의 주변에 손닿는 곳에 두면서 아무 때나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며, 그런 조그만 노력으로 제법 깊은 감동을 뜻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책이다. 김점선 화백의 삽화가 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만나는 재미 또한 적지 않다. 영어 원문도 소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원문으로 읽어주면 더 좋을 것이다. 시와 그림과 해설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이 되고자 한 저자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지기도 한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 천경자 저 / 랜덤하우스중앙

천경자의 본업은 물론 화업이지만 토속적이고 정취있는 한국어 구사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문필가로도 이름이 드높다. 도미 10여 년이 지난 이즈음 세 권의 책이 잇달아 출간되었는데, 평전, 자서전과 더불어 출간된 이 책은 그림에세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천경자의 모든 책은 일종의 자전과 다름없다. 거기에는 '환상성'으로 설명되는 그림 세계의 비밀열쇠가 의외로 생활고나 실패한 결혼의 상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이 밝혀지고, 점점 잊혀져가는 1950년대의 생활사,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벌거벗은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 가려뽑은 작가의 베스트 작품들이 올칼라로 담겨있다. 사사로움과 경험주의적 태도를 글쓰기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로 여기지만, 이 책은 오히려 철저히 사사롭고 직접 체험한 사실들로만 구성된 예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를 통해 한 예술가의 개인사가 어떻게 보편적 공감으로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천경자의 환상이 결코 낭만성의 이웃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지의 반영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그림들은 새로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추천위원 : 김갑수(문화평론가)〉

흙에서 빚으로 …… 이순이 저 / 종이거울

흙에서 태어난 우리, 언젠가는 한줌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고, 내 뼈가 묻힐 고향이다. 이 책은 그 흙에서 도자기를 빚는 도공 가족의 삶의 이야기다. 저자 따시최된 이순이는 도공의 아내, 도공의 어머니로 도자기를 빚으며 배운 인생을 수필로 풀어놓았다. 따시최된은 '등불'이라는 티베트 이름으로 그녀 삶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를 따라가다보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수행임을 느낀다. 초짜는 안정이 안 되면 섬세한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인은 괴로울 때 칼을 잡아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청정해진단다. 흙을 다독거릴 때 너무 힘을 주어 강하게 치면 흙이 화가 나서 끊어져버리고, 사랑하는 이의 손길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다독거려 끌어올려야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나. 과연 흙은 생명이다.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고향의 정취 간직한

옛 돌담길 걸어보세요!

고성 학동마을 (경남 고성군)

고성의 학동마을은 서기 1670년경 전주최씨 선조의 꿈 속에 학(鶴)이 마을에 내려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날이 밝아 그 곳을 찾아가 보니 과연 산수가 수려하고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므로, 명당이라 믿고 입촌, 학동이라 명명하면서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로 전해진다.

현재 마을 뒤에는 수태산 줄기가, 마을 앞에는 좌이산이 솟아 있는 소위 '좌청룡우백호'의 지세이며 마을 옆으로는 학림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마을의 배산임수형 입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마을의 가옥은 상당부분 새마을운동 당시 슬레이트 기와로 개량되었으나 문화 재자료 제208호 '육영재', '최씨고가' 등 일부 전통가옥이 보존되어 있어 전통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대구 옻골마을 (대구 동구)

옻골마을은 약 400여 년간 경주 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온 곳이다. 마을 뒤에는 주산인 해발 390m의 옥고개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왼편에는 황사골, 오른편에는 새가산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터는 세장하며 농토 또한 비교적 좁은 편 마을의 가옥은 대부분 전통한옥으로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골냄새를 물씬 풍길 정도로 예스러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민속자료 제1호 '둔산동 경주 최씨종가 및 보본당 사당'은 마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 마을의 담장은 대부분 토석담으로 마을 안길의 돌담길이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통가옥들과 어울려 자연스런 동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돌담길은 전형적인 반촌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우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잘 연출하고 있다.

담양 창평 삼지천마을 (전남 담양군)

삼지천 마을은 예부터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창평 유지들의 요람이었다. 동편에는 월봉산, 남쪽에는 국수봉이 솟아 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천의 모습이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 안고 있는 형국으로이라 하여 삼지(내)천[三支(내)川]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내에는 시도민속자료 제5호 '담양고재선가옥'을 중심으로 여러 채의 전통한옥이 잘 남아 있어 전통마을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 마을 담장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돌과 흙을 사용한 토석담으로 비교적 모나지 않은 화강석 계통의 둥근 돌을 사용하였고, 돌과 흙을 번갈아 쌓아 줄눈이 생긴 담장과 막쌓기 형식의 담장이 혼재되어 있다. 대체로 담 하부에는 큰 돌이,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과 중간 정도의 돌이 사용되었다. 'S'자형으로 자연스럽게 굽어진 마을 안길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고가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더욱 운치있다.

2006년 우수 브랜드 쌀 한마당

– "2006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사업" 발대식 및 우리 쌀의 우수성 홍보 –

4월 20일 양재동 농수산물 유통공사 aT센터에서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와 소비자단체장 및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부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해 온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사업"의 금년도 시작을 알리고, "브랜드 쌀"로 대표되는 우리 쌀의 품질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2006 우수 브랜드 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6년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50개 브랜드 의 쌀이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쌀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쌀 시장 개방과 수입쌀 직판이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발대식 이후 브랜드 쌀 평가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우수 브랜드 쌀" 전시마당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브랜드 쌀 평가사업"에서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된 모든 우수 브랜드 쌀을 전시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 쌀의 우수성 홍보 및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2005년도 선정 12개 우수 브랜드 쌀 음식 맛보기" 시식마당에서는 2005년도에 선정된 12개 우수 브랜드 쌀로 만든 음식에 대한 시식을 통해 각 브랜드별 특징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우수 브랜드 쌀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했다.

"우리 쌀 사랑" 나눔마당은 '아름다운 우리 쌀 떡', '새로운 퓨전 쌀 음식' 등 다양한 쌀 요리를 전시하고 시식코너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 쌀 고유품종 찾기' 쌀 경품놀이, '떡메치기', '쌀 아이스크림' 맛보기 등으로 "쌀"과 "쌀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 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쌀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쌀 소비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 · 도 지부 234개 시 · 군 · 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유류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지부

고유가 시대를 접하면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 명목아래 주유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지난 4월 10일~13일까지 부산시 16개구 전역을 대상으로 유류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각 브랜드별 가격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유류비 절약에 도움을 주고자했다.

수입쌀 공매불참 캠페인

시지부

소비자단체가 수입쌀을 대규모 할인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수입쌀 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 수입쌀 시판을 저지키 위한 전국규모의 소비자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본 지부도 4월 10일 부산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수입쌀 안 먹기 운동과 함께 유통업체의 수입쌀 공매불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관리보험 바로알기 교실

시지부

4월 12일 본회 강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건강보험, 노인수발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등 건강관리 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광역시지부

서포터즈 양성 교육

시지부

4월 14일~7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도서관 3층 1 강좌실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제2의 인생찾기'란 주제로 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포터즈 교육 수료자는 영 · 육아시설 및 노인시설 등 각종 기관에서 일하는 등 여성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식의약 안전정보단 발대식' 참가

시지부

4월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식의약 안전정보단' 발대식에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단체, 학부모회, 업체 관계자 등 700여명을 '식의약 안전정보 단원'으로 위촉해 생활 속에서 체험한 부정불량 식의약품과 신종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단합대회 및 전국지도자대회 참가

시지부

4월 21일 임원 및 회원들이 부평 철마산에서 산행 겸 단합대회를 가져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봉사단체로서 주부교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시안게임서명운동

부평구지회

지난 3월 31일 회원 및 일반인 120여명이 부평 전 지역에서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사랑나눔실천 및 캠페인

연수구지회, 계양구지회, 서구지회, 강화군지회

연수구지회는 4월 14일 회원 15명이 선학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감을 위로하며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5일에는 세화복지관에서 생일을 맞은 불우 학생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열어 축하하고 위로 격려했다.

계양구지회는 4월 10일 관내 위치한 노인 회관을 방문해 노인 300분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했다.

서구지회도 4월 10일 서구 석남동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30분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16일에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져 있는 연희동 승학길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화군지회는 4월 21일 봉천산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유류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지부

4월 10일~12일 본 지부 모니터 요원들이 5개구 지역 28군데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유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주유 가격을 제공했다.

제24기 주부대학 봄소풍

시지부

4월 19일 회원 50여명이 항공우주박물관을 출발점으로 남해대교까지 동행하며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간관계와 마음의 창' 강의

동구지회

4월 21일 지부강의실에서 1/4분기 교실 개강을 실시해 리더십센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 지부의 최은숙 운영위원이 첫 강의를 실시했다. '인간관계와 마음의 창'을 주제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상대방에게 열어놓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지부

2006 주부교실 지도자연수

시지부

지난 4월 4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지부 임원과 5개구지회 임원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 한남대학교 김형태 교수의 특강, 분임토의 및 긴장감을 풀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쉽 함양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17회 소비자 정보전시회

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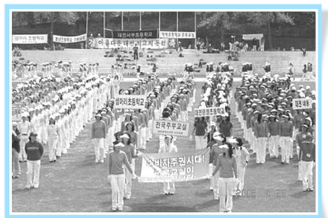
4월 11일~17일 7일 동안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열었다. 2005년 한해 주부교실 활동사항과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상담현황 및 처리결과를 패널로 제작해 전시했고, 별도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예방법, 유사휘발유 피해사례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유용한 소비자 정보를 홍보 및 제공했다.

제29회 대전주부교실 회원 친선 운동회

시지부

4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2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을 위한 친목 모임인 주부교실 회원 친선운동회를 개최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내빈들이 회원들과 함께 운동 경기에 동참해 자리를 빛내 주었고, 더불어 다양한 경기를 통한 참여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사회환경 조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울산광역시지부

'대학입시 자녀를 위한 현명한 어머니 되기' 교육

시지부

지난 4월 7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성신고등학교 안정문 교사가 대학입시 자녀를 위한 현명한 어머니 되기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입시전략 설명회 및 고3 어머니들의 마음가짐'이란 주제 토론을 통해 입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함께 배워요' 의약품 · 화장품 교육

시지부

최근 의약품 남용과 함께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올바른 의약품 및 화장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4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원정 연구원이 울산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무료 교실 및 그린여성자전거 교실 운영

시지부

매주 월 · 수요일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인 50분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 및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월~금요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자건거타기 교육을 실시해 국민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봉사활동

시지부

4월 26일 엄마의 손실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혜진원을 회원 10명이 방문해 목욕봉사, 식사제공 및 주변청소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지부

도지부회장 이 · 취임식

도지부

4월 14일 경기도지부 강당에서 중앙회 회장 및 지역사회의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년간 주부교실을 이끌어주셨던 박청자 회장이 퇴임하며 제8대 박명자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무의탁 독거노인 경로잔치

용인시지회

4월 19일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무의탁 독거노인 50분을 음식점(홍성갈비 집)에 모시고 식사대접 및 선물을 전달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외로움을 위로해드렸다.

농산물 원산지 교육

평택시지회

4월 17일 신평동 사무소에서 회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주최로 우리 농산물 구별법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오산시지회

4월 12일 수청동 대우 1, 2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릭 서비스의 협조로 회원 25명과 공무원 및 A/S 기사 등 40여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사용치 못하고 있던 전자제품 80여건이 접수 처리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강원도지부

바른 선거문화 정착 유권자 의식 교육

도지부

지난 4월 11일 LG 강당에서 150명이 함께 모여 심상목(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로부터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유권자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5 ·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정치판이 형성되는가하면 한편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양극화 원인과 그 부작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거권자인 국민들의 선진 유권의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식목일 나무심기

춘천시지회

지난 4월 7일 제61회 식목일을 맞아 여성단체협의회와 본 지부 회원 30명이 삼천동 헌수 공원에 모여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여 나무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자연 사랑을 실천했다.

세쌍둥이 출산 축하금 전달

홍천군지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홍천읍에 3쌍둥이가 태어났다.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3쌍둥이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난 4월 3일 회원 4명이 3쌍둥이네 집을 방문해 축하금을 전달했다.

충청북도지부

의정지기단 발대식

도지부

4월 19일 (구)여성회관 강당에서 의정모니터링으로 활동할 회원 20명을 비롯한 50명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은 5월~10월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횡성군지회

지역 주민 화합의 기회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생활 체육대회'가 지난 4월 3일 횡성군 종합 운동장에서 개최되어 회원 15명이 동참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및 환경정화활동

충주시지회

4월 12일 회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과 함께 무학, 자유, 공설 등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물가 조사, 불공정 거래행위 및 원산지표시 감시 ·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17일에는 회원 50명이 충주천변에서 쓰레기 수거를 비롯해 수질 감시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청주시지회, 괴산군지회, 옥천군지회

청주시지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원 8명이 사직동 복지회관에서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있다.

괴산군지회는 4월 5일 회원 15명이 중증장애인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천재활의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15일에는 회원 10명이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옥천군지회는 4월 14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알뜰매장에 회원 2명이 참여해 판매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남도지부

제34차 정기총회

도지부

지난 4월 4일 공주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과 시 · 군지회 회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앞으로의 주부교실 조직 강화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책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 보호 교육

부여군지회

지난 4월 24일 농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청남도 도청 경제정책과 이영재님은 낭비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만이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재난을 막을 수 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된 소비를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라북도지부

교통안전 거리질서캠페인

도지부

4월 10일과 17일 전주시내 일대에서 회원 20명이 시민들에게 정지선 및 신호등 지키기 실천 유도 및 홍보를 위해 어깨띠 착용, 플래카드 및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교통안전 거리질서캠페인을 전개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익산시지회, 군산시지회, 정읍시지회, 김제시지회, 고창군지회, 완주군지회

익산시지회는 4월 17일 회원 7명이 기독영아원을 방문해 세탁봉사 및 주변정리 등으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군산시지회는 4월 18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벚꽃잔치 행사에 회원 4명이 참가해 국수, 김밥 및 음료 판매와 함께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정읍시지회는 4월 21일 회원 30명이 천변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자연사랑을 실천했다.

김제시지회는 4월 29일 회원 10명이 성암복지원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30분의 목욕을 도와주는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군지회는 4월 21일 회원 7명이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 30여만 평의 보리밭에서 열린 제3회 '고창 청

보리밭 축제'에 참가해 음료와 식사 및 간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완주군지회는 4월 21일 회원 6명이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150분에게 김치와 성미를 전달하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다.

전라남도지부

릴레이 봉사활동

나주시지회, 곡성군지회, 영안군지회, 화순군지회

나주시지회는 4월 8일~9일 양일간 열린 '전국사이클대회' 행사에 회원 30명이 참가해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곡성군지회는 4월 8일 회원 30명이 곡성기차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운동을 전개하며 자연 사랑을 실천했다.

영안군지회는 4울 8일~12일까지 열린 왕인 벚꽃축제 기간에 회원 40명이 참가해 관광객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화순군지회는 4월 20일~23일 고인돌축제기간동안 회원 50명이 관광객들에게 무료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향토음식 판매 등으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반찬과 생활필수품 등을 마련해 지역 내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

한마음 다짐대회

고창군지회

4월 11일 고흥군민회관에서 회원 40명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함께 모여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졌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운동 경기에 참여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상북도지부

단위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

4월 17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출발해 구미문화예술회관, 동아백화점까지 단위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와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함께 가격비교를 생활화해야만 물가안정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홍보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유도했다.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참가

경주시지회

4월 15일~20일까지 경주 황성공원에서 개최된 '한국의 술과 떡 잔치'에 회원 전원이 장학금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6일 동안 떡 판매에 참여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포항시지회, 영주시지회, 영양군지회, 청도군지회

포항시지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북구에 위치한 학산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조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영주시지회는 4월 19일 하망성당 내 위치한 만남의 집을 방문해 중식 제공과 청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로했다. 21일에는 어렵게 지내시는 독거노인 2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영양군지회는 4월 6일 상이군인들이 거주하는 삼산양노원을 방문해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고, 청소도구를 구입해 청소 및 세탁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정을 전했다.

청도군지회는 4월 17일 한재 미나리 단지를 방문해 미나리 재배에 부족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왔다.

공명선거운동 캠페인

군위군지회

4월 22일과 25일 안동종합체육관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5 · 31 지방선거를 위한 공명선거운동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상남도지부

청결운동 전개 및 폐기물 소각장 답사

밀양시지회

4월 1일~4일까지 회원 40명이 사명대사 생가 유적지 개관식 행사를 맞이하여 밀양시 전역의 공중화장실 청결운동을 실시했고, 5일에는 회원 40명이 무안면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장 답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제주도지부

농산물원산지표시 확인 및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도지부

4월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회원 30명이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본격적인 시판을 앞두고 있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 및 감시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장바구니 물가조사

도지부

제주도청의 위탁을 받아 지속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10명이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위치한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 12개 업소의 55개 기초 생필품을 조사해 도민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발 맛사지' 봉사 활동

남원읍분회

매주 토요일, 읍사무소에서 회원 50명이 홀로 사시면서 농사일로 힘겹게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농사일로 지친 몸을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발 맛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부교실게시판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본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 새롭게 요가교실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문의 : (02)2265-0637, 2265-3627~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 (02)2273-2485,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6월 수강생 모집

본회는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 간	수 강 료
취업 및 창업훈련반				
글짓기 독서지도자 양성반 6기	6.13	12주	화(10:00~12:00)	12만원(재료비별도)
초등수학지도자 3기	6.13	12주	화(10:00~12:30)	12만원(교재비별도)
펠트자격증반	6.7	12주	수(10:00~12:00)	10만원(재료비별도)
한지공예(단기과정) 초/중/고급	6.9	2개월	금(10:00~12:00)	월2만원(재료비별도)
재직근로자				
패턴메이킹 및 의류제작 저녁반	6.20	12주	화,목(19:00~22:00)	30만원(기초도구 포함, 환급80%)
직업능력개발훈련				
어린이 옷 만들기	6.13	3개월	화(14:00~17:00)	월5만원(재료비별도)
전통한복, 개량한복 만들기	6.7	3개월	수,목(14:00~17:00)	20만원(재료비별도)
의류수선 및 리폼	6.12	12주	월(14:00~17:00)	월4만원(재료비별도)
토피어리	6.13	5주과정 (작품당)	화(14:00~16:00)	4만5천원재료비포함)
양재초급	6.13	12주과정	화(14:00~17:00)	15만원(재료비별도)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퀼트공예(취미)	6.7	4주	수(10:00~12:00)	4만원(재료비별도)
비즈공예(체험반)	6.13	2개월	화(12:30~14:00)	4만원(재료비별도)
토피리어(체험반)	6.13	4주	화(12:30~14:00)	4만5천원(재료비별도)
퀼트수공예	6.13	4회 (초급기준)	화(15:00~18:00)	6만원(재료비포함)
뜨개반(대바늘/코바늘)	6.8	8주	목(10:00~12:00)	5만원(재료비별도)
단기직종프로그램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전문간병인 교육(11기)	6.26	6/26~7/7	월~금 (09:30~13:30)	무료(연회비 1만원)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의 : (02)3409-1948~9